

## 통역의 Effort 모델을 적용한 번역과정 분석 — 번역시간의 경제적인 운용전략을 중심으로

신 지 선  
(이화여대)

### 1. 서론

Daniel Gile이 제안한 Effort 모델의 핵심은 통역사가 통역 과정에서 실수와 생략을 줄이고, 양질의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역사의 한정된 인지처리 용량(mental capacity)<sup>1)</sup>을 적절히 안배하라는 것이다. Gile은 동시 통역사들이 속도가 빠르거나 내용이 전문적인 연설을 통역할 때뿐만 아니라, 속도가 느리고 내용이 평이한 연설을 통역할 때도 통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1) Gile은 Effort 모델을 설명하며 capacity, Effort, energ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맥락에 따라 의미와 용도상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함을 밝혀둔다. 또한 capacity는 한국어로 ‘역량’, ‘용량’, ‘능력’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capacity가 물리적인 양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용량’으로 번역한다.

Effort 모델을 고안하게 되었다.

통역에는 인지처리 에너지(mental energy)가 필요한데, Effort 모델에서는 통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통역과정에서 통역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양 이상의 용량(capacity)이 필요할 때 통역사는 과부하 상태가 되어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 통역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Gile은 통역사의 인지처리 용량을 소모하는 통역의 각 과정을 Effort로 분류하고, 통역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Effort를 체계적으로 안배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통역과 번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천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목표언어로 재구성한 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메시지 전달 형태가 말과 글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통역과 번역을 완수하기 위해 통역사와 번역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상이하지만, 통역과 번역에서 경제적으로 조절해야 할 요소를 각기 다르게 전제하면 Effort 모델을 번역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통역의 Effort 모델에서는 한정된 요소로 통역사의 인지처리 에너지를 대상으로 삼지만, 본 연구자는 번역의 모델에서는 적절히 안배해야 할 제한요소로 번역사에게 주어진 테드라인까지의 시간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역의 Effort 모델을 고찰한 뒤, 번역과정에 이 모델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번역사나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 번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번역의 Effort 모델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통역의 Effort 모델을 번역에 활용하는 것의 의의를 밝히고 이 모델이 실제 번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제안하려고 한다. 또한, 번역학 연구에서 연구 모델 창안과 모델 활용의 중요성도 환기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번역학 연구에서 모델 활용의 의의

우선 본 논문에서 통역학에서 정립된 모델을 번역학에 적용하려는 이유를

밝힌 후 Effort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Chesterman은 번역학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을 제안하면서 모델을 고안하여 활용할 때 학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언급할 바 있다. ‘모델’과 ‘이론’은 개념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hesterman은 ‘모델’은 ‘이론’과 ‘데이터’의 중간지점에 존재하여, 이론만큼 추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2000 15).

모델이 추상적인 이론과 달리 구체적인 이유는, 이론은 개념을 토대로 관념적으로 유추해서 정립이 가능하지만, 모델은 실험 데이터의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토대로 도출해 낸 산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실제 틀과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은 학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일례로, 모델을 활용하면 분석 대상간의 대조 비교, 연구자의 가설 입증, 정보처리의 진행단계 고찰, 특정변수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물론 Hermans가 지적하듯이 모델의 종류가 다양하고 상이하어 모델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1998 157). 무엇보다도 이론가들 가운데 모델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도, 연구와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 자체의 장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많은 모델에서 분석 과정 및 연구 결과가 시각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제 학습에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쉽게 각인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모델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학 연구에도 모델을 고안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모델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통역학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Effort 모델을 고찰한 뒤, 이 모델을 번역과정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여 실제 번역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다.

## 2.2 Effort 모델의 특성

본 논문에서 번역학에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통역의 Effort 모델이란

과연 무엇인가?

Effort 모델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보처리 용량(processing capacity)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특별히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자동적인 작업(automatic operations)을 할 때는 정보처리 용량이 필요 없지만, 머리를 써야 하는 비자동적인 작업(nonautomatic operations)을 할 때는 정보처리 용량이 필요하다(1997 161). 즉,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경을 써야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다.

통역은 연사의 연설을 듣고 메시지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자동화되지 않은, 자동화될 수 없는 과정이다. 통역사는 통역과정에서 뇌 내의 정보처리 용량을 소모하여 통역을 진행해 나간다. 즉, 통역과정은 통역사의 의식적인 인지처리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Gile은 통역과정에서 정보처리 용량을 소모하며 기울이는 의식적인 노력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Effort로 분류하고 있다(1997 162).

첫째, 청취 분석 Effort (L)

둘째, 연설 발화 Effort (P)

셋째, 단기 메모리 Effort (M)

Gile이 제안한 동시통역 과정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1997 169).

$$\underline{SI = L + P + M + C}$$

L : Listening and Analysis Effort

P : Speech production Effort

M : Short term memory Effort

C : Coordination Effort (coordination of the three Efforts above)

통역과정의 첫 번째 단계(L)에서 필요한 Effort는 연사가 발화한 내용을 통역사가 귀를 통해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인지처리 Effort이다. 물리적인

로 들리는 각 단어의 ‘소리’와 소리가 표상하는 각 단어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통역사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Effort를 기울이게 된다.

두 번째 단계(P)에서 필요한 Effort는, 원천언어로 인식한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전환하여 목표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통역사가 원천언어에서 사용된 단어나 문장 구조에 집착할 경우, 청중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통역이 되기 쉽다. 따라서 통역사는 청중들에게 연설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짧은 시간 안에 적절한 목표언어의 표현과 문장구조를 찾아 발화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M)에서 단기 메모리 Effort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역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통역사가 듣는 순간과 이해하는 순간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고, 또 연설 내용이 난해하거나 연사의 발음이 불분명할 때 통역사는 발화하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잠시 멈추고 다음 정보를 기다릴 수 있다. 이 때 목표언어로 발화하기 전에 원천언어로 들은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역사는 단기 메모리 용량을 소모하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Effort 외에 Gile은 마지막으로 코디네이션 Effort를 제안하고 있다. 코디네이션 Effort란 위의 세 가지 Effort를 조화롭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처리 역량으로서 전체적으로 각각의 Effort를 적절히 조절하고 안배하는 기본적인 Effort라고 간주할 수 있다.

네 가지 Effort가 모여 이루어지는 동시통역 과정 모델에 이어 이번에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용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Gile의 다음 모델을 살펴보자(1997 170).

$$TR = LR + MR + PR + CR$$

TR : Total requirements

LR : capacity requirements for L

MR : capacity requirements for M

PR : capacity requirements for P

CR : capacity requirements for C

위의 밑줄 친 식을 살펴보면 통역과정에서 필요한 용량의 총량은 L단계를 위해 필요한 용량의 양 + M단계에 필요한 용량의 양 + P단계에 필요한 용량의 양 + C단계에 필요한 용량의 양의 합이다. 그런데 각 부문에서 필요한 용량의 총량이 각 부문에서 통역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의 양보다 적어야 통역사가 무리 없이 통역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부문에서, 통역사가 할당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용량을 필요로 한다면 통역사는 과부하 상태에 빠져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역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시통역은 정보처리 용량이 필요한 각각의 Effort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어떠한 용량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Gile이 주목한 것은 통역사의 인지처리 용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Effort의 총량이 개인의 용량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통역과정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용량의 총량이 통역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관계를 표시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1997 171).

**TR (Total Requirements) < TA (Total Available processing capacity)**

LR < LA (capacity available for L)

MR < MA (capacity available for M)

PR < PA (capacity available for P)

CR < CA (capacity available for C)

위의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부문에서 필요한 처리 용량의 총량은 통역사가 가지고 있는 인지처리 용량의 총량보다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역시 듣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용량의 양은 통역사가 듣고 분석하는데 사용가능한 용량의 양보다 적어야 하고, 다른 용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통역의 질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한정된 통역사 개인의 용량을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

한 이유에서 Effort 모델은, 통역사가 본인의 한정된 mental 에너지와 용량을 통역과정에서 적절하게 안배할 것을 강조한다.

### 2.3 Effort 모델의 실제 활용 사례

그렇다면 실제 통역 상황에서 Effort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통역사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역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통역해야 할 연설 내용이 세계평화를 위해 각 국가가 다 같이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연사의 발음도 명확하고 연설 속도도 빠르지 않다. 이 경우에는 Effort 모델의 듣고 분석하는 L Effort, 정보를 저장하여 기억하는 M Effort, 목표어로 재구성하는 P Effort 중에서, 목표어로 재구성하는 P Effort에 상대적으로 많은 용량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내용이 평이하기 때문에 듣고 분석하는데 많은 Effort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잠시 머릿속에 저장해두었다 통역해야 할 전문적인 정보도 별로 없기 때문에 메모리 Effort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연설문에서 청중은 통역사가 매끈하고 격식 있는 목표 언어를 구사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다듬어 발화하는 데 처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전문가가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평가하고 분야별 지표 및 미래 동향을 전망하는 발표를 통역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잘 듣고 어떤 식으로 전후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논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L 단계에 많은 용량을 배정하고, 고유명사, 수치, 통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히 기억해 두기 위해 단기 메모리 용량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경우는 청중도 경제관련 전문가 집단일 가능성이 높아서 통역사가 목표어로 재구성할 때 원천언어를 음차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청중이 기대하는 것은 근사하고 유려한 모국어 표현력이 아니라, 다소 어색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통역사가 재구성하여 발화하는 P Effort는 다른 Effort에 비해서 적게 기울여도 된다. 이와 같이 통역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황별로 요구되는 각 Effort의 양은 다르다. 이

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하는 용량이 바로 코디네이션 Effort이다.

그런데 통역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와 부적절한 통역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각 부문에서 소요되는 처리 용량이 과중하여 인지처리 에너지에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이다. 듣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목표어로 발화하는 각각의 부문에 똑같은 양의 Effort를 모두 기울이면, 에너지를 소진하여 통역결과물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 따라서 한정된 개인의 총 용량을 통역 과정에서 부문별로 어떻게 안배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Gile이 제안한 Effort 모델을 실제 통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통역사들이 Effort 모델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뇌내의 처리 용량 조절을 통하여 통역의 질 저하를 막는 것과 같이, 번역사들에게도 번역의 질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기 위하여 위의 Effort 모델 전개 과정을 번역과 연관 지어 설명해 보겠다.

## 2.4 번역의 Effort 모델

Effort 모델은 기본적으로 동시통역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물론 순차통역, 시역(sight translation), 텍스트가 주어지는 경우의 동시통역, 번역의 경우도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간단하다. 더욱이 번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Effort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 없다. 단지, 번역사들은 통역사에 비해 같은 정도의 언어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Gile은 번역사는 짧은 순간에 바로 정보를 처리하여 발화해야 하는 동시통역사와는 달리 이해 및 분석단계에서 여러 번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목표 언어로 재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번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된 시간 안에 용량을 안배해야 하는 통역사와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시간을 두고 교정을 거듭하는 번역과정을 Effort 모델의 기본 배경이 되는 동시통역 상황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Gile의 견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Levý가 최소최대 법칙에서 밝혔듯이, 번역사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적합한 번역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번역도 명백히 한정된 시간 내에 효과적인 전략을 활용

해야 번역상의 실수나 번역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으므로, 한정된 처리 용량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하지는 통역의 Effort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통역과 번역 과정을 동일한 단위시간으로 떼어내어 비교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면 통역의 Effort 모델을 번역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번역 과정의 단위를, 번역물을 의뢰받아 결과물을 제출하기까지 소요되는 총시간으로 간주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Effort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sup>2)</sup>. 즉, 통역에서는 Effort 모델이 통역사가 연사의 연설을 듣고 목표언어로 발화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대상으로 하여 용량 안배와 조절을 제안하지만, 번역에서는 번역물을 읽고 분석하기 시작하여 결과물을 납품하기까지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통역과 비교해서 번역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번역사가 번역과정에서 인지처리 에너지를 조절하여 안배하는 방식은 통역사와는 다르고, 통역사만큼 단시간에 개인의 뇌내 용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역의 경우에는 Effort 모델에서 처럼 한정된 자원을 인지처리 에너지로 보는 대신에 번역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한정된 요소로 주목하고자 한다.

통역에서 통역사가 인지처리 에너지를 적절히 안배해야 통역하는 데 실수가 줄어들고 질이 보장되는 것처럼, 번역사는 번역을 할 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경제적으로 안배해야 번역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ffort 모델에서 통역과정을 인지처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각 부문으로 구분한 것처럼 번역과정에서 번역사가 시간을 소모하는 부문을 구분해 보자. 우선, 번역에 투입되는 총 시간은 원천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기 위한 시간, 정확한 내용 파악이나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리서치하는 시간, 목표언어로 재구성하는 시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3)</sup>. 번역과정은 이들 각

2) 본 연구에서 Effort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번역과정은 비문학 작품의 번역과정으로 한정한다. 문학작품의 경우, 비문학 번역에 비하여 주어진 번역기간이 길어서 번역사가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한정된 촉박한 시간을 경제적으로 안배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본 모델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문학번역 과정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3) 질의 Effort 모델에서는 이 과정에 코디네이션(C) Effort가 추가되어 있다. 각 부문에 필요한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안배하는 데 필요한 Effort이다. 동시통역에서는 동시에 여러 부문에 걸쳐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상황에 따라 코디네이

각의 부문에 적절하게 시간과 노력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underline{T = R + IR + P}$$

T = Translation

R = Reading & Analysis Time

IR = Information Research Time

P = Production Time

즉, 번역과정(T)은 읽고 분석하는 시간(R) + 번역에 필요한 정보를 리서치하는 시간(IR) + 목표언어로 재구성하는 시간(P)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번역을 의뢰받은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텍스트를 번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Effort 모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underline{TR = RR + IRR + PR}$$

TR : Total requirements

RR : time requirements for R

IRR : time requirements for IR

PR : time requirements for P

$$\underline{TR \text{ (Total Requirements)} < TA \text{ (Total Available Processing Time)}}$$

RR < RA (time available for R)

IRR < IRA (time available for IR)

PR < PA (time available for P)

션이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번역과정에서는 이 Effort의 활용 빈도가 낮아서 생략하였다.

위의 모델에서 보듯이 번역물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는 총 시간은 번역사에게 데드라인까지 주어진 총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번역사가 데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여 번역사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번역을 하다보면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데드라인을 가까스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서둘러 작업을 끝내느라고 흡족하지 않은 결과물을 보내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분적으로는 위와 같은 시간관리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R, IR, P 각각의 부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적/외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sup>4)</sup>.

다시 말해, 원문 텍스트의 성격과 난이도, 번역 텍스트의 목적, 의뢰인의 요구사항, 번역사의 주제지식 정도 등에 따라서 원문의 철저한 독해와 분석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용어와 난해한 주제가 대거 등장하여 정보를 리서치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텍스트의 내용과 난이도는 평이하야 읽고 리서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텍스트의 성격상 아주 격식 있고 유창한 목표언어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표언어로 재구성하고 교정하는 P부문에 많은 시간을 안배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 분량이 같고, 번역기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번역과정의 각 부문에 필요한 시간을 경제적으로 안배하여야 한정된 시간 내에 양질의 번역물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원문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필요한 리서치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면, 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교정할 시간을 확보해 두지 않아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4) 번역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상황별로 달라지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번역사가 하루에 동일한 시간을 번역작업에 투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번역사는 텍스트를 받아 본격적인 번역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번역 과정의 첫 단계에서 본 텍스트를 잘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각각의 부문에 투입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관리 측면에서 번역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번역을 진행하는 것과, 시간 안배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번역을 하는 것과는 진행 속도에 크게 차이가 날 것이며 이는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다음에는 실제 번역에서 위의 시간관리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사례<sup>5)</sup>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 2.5 번역과정에서 실제 활용 사례

만약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각각 번역하는데 번역사에게 동일한 번역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자.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번역물을 만들어내려면 번역과정에서 각각의 부문에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텍스트 (1)의 경우, 밑줄로 표시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오염물질과 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신(新)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독자가 이해가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사가 주제지식과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텍스트에 나오는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methods)”, “태양열전지의 효율성”, “다중접합 태양열전지(multi-junction solar cells)”, “태양열 집열판 당 이용 가능한 전력(available power per solar panel area)”, “가스와 전기의 혼합형 엔진(combined gas-electricity engine)”, “사후처리 폐기(end-of-life disposal)”, “지열시스템 확대(enhanced geothermal systems)”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 시스템인지를 알아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기술문서의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리서치

5) 논문에 소개된 세 개의 텍스트는 본 연구자가 번역을 의뢰받아 실제로 번역했던 텍스트의 일부이다.

에 많은 시간을 배정해야 오역을 줄일 수 있고, 번역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번역과정 R, IR, P 중, IR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텍스트로, 그 분야의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리서치를 통하여 주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OECD Environmental Outlook 2030 중에서)

Several recent key innovation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y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For instance, carbon capture and storage methods can reduce CO2 emissions by absorbing the CO2 emitted from particular production processes. It is estimated that by 2030, the cos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ies could fall below USD 25 per tonne of CO2 (IEA, 2006b). In waste water and solid waste treatment, micro-organism are now being used to transform hazardous material into less dangerous compounds, and to decrease odour and dust generation. Innovation in the fabrication of solar cells (for instance, through the use of nano technology) has increased their efficiency significantly. Multi-junction solar cells now provide a 35% increase in available power per solar panel area, compared to existing technologies. In Japan, over 20% of biotechnology applications sold are for industrial-environmental applications. In China, the figure is over 10%; much higher than many OECD countries. Hybrid vehicle innovation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production of cars using a combined gas-electricity engine, while further research is underway to facilitate the use of hydrogen fuel cells. However, this latter example illustrates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ifferent innovations-while emissions of some local air pollutants may be concerns about end-of-life disposal.

One area which has seen significant innovation in recent years in renewable energy.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first-generation" (e.g. hydropower, biomass combustion) and "second-generation" (solar heating, wind power, etc.) technologies, some "third-generation" technologies presently being commercially exploited include concentrating solar power, ocean energy, enhanced geothermal systems and integrated bio-energy systems. Partly as a result of such innovations, costs are coming down and the use of renewables is increasing.

다음의 텍스트 (2)는 R, IR, P 가운데서 R 부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하는 텍스트의 예이다. 이 텍스트는 세미나 발표문의 요약본으로 특별히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과 논리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번역사가 함축된 의미를 찾아내고 논리를 세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앞 뒤 문장간의 연결 관계를 꼼꼼히 따지고, 길으로 드러나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해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자의 입장과 의견을 잘못 전달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영하기 쉽다. 원문 텍스트 가운데는 이처럼 어렵거나 난해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자의 독특한 표현방식이나 텍스트 구성방식으로 인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논리를 재구성하는데, 번역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 (New territories of art 중에서)

The meeting of several ten cultural managers and artists and the analysis of their works had the targets to have a better knowledge and **a better understanding on a unknown movement**. We were convinced that it was impossible to give a common definition of this. Everything prevent, on a fist view, to compare with **the typological objective**. The diversity of these experiences is on the origins, the organizational matters, the place of different art forms, the link with the populations and the authorities.

In France, we have a very bureaucratic attitude. We superposed different labels and we invented a sort of monster who cannot assume his missions. We call that "centre dramatique national" and ten years after we consider that **this form is not adapted to the new stakes** but we cannot stop or transform it. So you can understand that we tried **to find a frame to put some beacon and to go with these cultural adventures** and not to tempt to enclose them in a stupid desk.

Creators and public have been founding new relationships base on the permanent presence of artists in the heart of the territories. During twenty years, everywhere in France and in several occidental places, we built a lot of terminal for cultural consumption who have been building for the meeting between the art/products and the public/consumers. **This method to democratize the art is a failure** and the new territories of art tempt by other way to found a experimentation in the heart of urban,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se attempts are a fundamental criticism of the society of consumption**, but it's not only an attempt, it's also several proposals to another world. They aren't a global alternative; they are local and **cultivate their own singularity**. The context is always of the most important value that provide a large possibility to generate **artistic, physical and social proximity**.

다음으로 텍스트 (3)은 협상 전략을 소개하는 책의 일부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협상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 협상하러 간 자영업자가 대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외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이해하고 분석하는 R, 정보 리서치에 필요한 IR 부문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으리으리한 회사의 내부/외부 전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언어로 재구성하는 P부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원천언어 표현들을 적절한 목표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번역문을 수차례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3) (*Everything is Negotiable* 중에서)

The entrance to the glass palace is like a scene out of Cleopatra; vast columns rise towards the heavens, marbled staircases wind majestically upwards, fountains and waterfalls abound everywhere and there is solid dark wooden furniture dotted about like little fortresses on a plain. The only thing missing is a trumpet voluntary announcing arrivals.

Batches of people cluster at the mouths of high-speed lifts and the doors swish open and shut disgorging and swallowing their fare Effortlessly. Behind the front desks sit immaculately groomed receptionists chosen presumably for their perfect smiles and expensive teeth, and an ability to suffer boredom gladly.

Nearby, the security guards hover, looking busy but doing nothing much. Each is turned out like a Marine drill sergeant who has had nothing else to do since his last war. When a phone rings, it does so quietly and is answered with manic precision before the second bell.

When you arrive for an appointment you are treated as if you are in danger of becoming a lost parcel. And just in case you pass to tell you, and anybody else who asks, who you are.

When you get to the person you have come to see you enter an office that is as large as an aircraft hangar and has carpet pile up to your ankles. It also has the odd Picasso or Van Gogh on the wall and some tasteful sculpture in the corner. This is the moment when you make your most important mistake.

이상으로 각기 성격이 다른 세 가지 텍스트를 동일한 시간 내에 번역해야 할 때 R, IR, P 부문 중 각기 어떤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해서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번역과정에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번역의 질을 높이고자 통역의 Effort 모델을 번역과정에 적용해 보았다. Effort 모델은 동시통역과정을 L(Listening and Analysis), P(Speech production), M(Short term memory), C(Coordination)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문에 Effort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번역사의 한정된 용량을 적절히 안배할 것을 강조한다.

스피치를 듣고 분석하여 발화하는 통역과정과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여 글로 재구성하는 번역과정은 메시지를 분석하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각각의 전달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에 통역사나 번역사는 한정된 용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안배해야 결과물에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통역의 Effort 모델에서는 정보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지처리 용량을 조절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번역의 Effort 모델에서는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대상을 시간으로 전제하였다. 그 이유는 번역은 통역보다 장시간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져 인지처리 용량 안배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절해야 할 제한 요인을 시간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과정을 R(Reading & Analysis), IR(Information Research), P(Production)로 구분하고, 텍스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번역사가 R, IR, P 각각의 부문에 경제적으로 시간을 안배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한정된 시간 내에서 IR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기술문서의 경우에는 R이나 P에 시간을 적게 안배하고, 홍보문이나 광고문으로 목표언어의 유창성이나 표현력이 중시되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번역과정에서 P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면 번역결과물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사는 많은 경우, 촉박한 데드라인에 쫓기며 번역을 수행한다. 번역사에게 주어진 한정된 번역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특성과 번역문의 목적에 따라 번역과정의 각 부문에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역의 Effort 모델을 번역과정에 적용하여, 번역시 주어지는 한정된 시간을 R, IR, P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텍스트 종류에 따라 번역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모델을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Baker, Mona. ed. 1998.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Gile, Daniel. 1997.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9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hoenix Elt.
- Nord, Christiane. 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Atlanta: Rodopi.
- \_\_\_\_\_. 1997. *Translating as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 Northampton: St. Jerome.
- Pöchhacker, F and M. Shlesinger. 2002.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eleskovitch, D and M. Lederer. 1995. *A Systematic Approach to Teaching Interpretation*. RID Publishing.

[Abstract]

**Efficient Management of Translation Time**  
— based on Gile's Effort Model

Shin, Jis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pply Gile's Effort Model to translation process to underline the significance of efficient time management. Daniel Gile emphasizes the difficulties and mental efforts involved in interpreting process, suggesting necessary strategies to handle these problems. The Model is based on the concept of processing capacity and in this model, interpreting tasks are viewed as a non-automatic operation that requires much processing capacity.

In order for interpreters to reduce unexpected interpreting errors and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interpretation, they are advised to make the best of mental capacity by properly allocating one's own energy to each effort. Unlike Gile's Effort Model, this paper assumes the amount of time given to a translation process as an object of management and coordination.

Translation process consists of Listening and Analysis, Information Research, and Production. Each phase requires different time allotments depending on text type, purpose of translation, its status, etc. If a translator gives more than necessary time to a certain process, due to his ignorance of efficient time management, it would result in reduced quality of the product, fraught with under-translation from insufficient time for research or unrefined target language from lack of revision time in production phase.

Accordingly, time management model for translation should be contemplated in the translating process to provide high-quality translation.

▶ Key Words: Effort Model, translation process, processing capacity, time management, mental effort

신지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전임강사

[jisunshin@ewha.ac.kr](mailto:jisunshin@ewha.ac.kr)

관심분야: 번역교육, 아동문학

논문투고일: 2008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12일